

시

빛바랜 추억의 그리움

하얀 빈 여백에 산란하는
매미의 껍데기처럼
꿈의 발자취 남긴
고독한 감성의 운슬도

전도몽상이 아닌
천상화(天花)*가
숫대로 날갯짓하는가?

빛바랜 추억 간이역에서
마음속 그리움 파편의 울림인양

*천상화 꽃말 : 기다림,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풀 깊어지는 삶의 향기가
노을 짓는 애잔한 동심도
카드섹션 놀이하는
오색단풍이 입화되는
마지노선에서

약력

- ▲한국문인협회, 세계문인협회 회원
- ▲월간문학세계 문인회, 광주문인협회 회원
- ▲세계문학상 본상, (사)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세계참좋은인재 대상
- ▲세계문화예술 공로상, 대한민국 예술문화 세계대사
-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인사-대상
- ▲시집 : '여명의 빛 하늘 아래', '수선 되어가는 삶'



시

삼각 변주곡變奏曲-헌정 연주회

몸 없는 자궁이 소리를 낸다

아무것도 없이 짝 찬 무대

그 소리 뒤쪽에
어제의, 울음 끈을 잡고

오늘 나는, 아버지 갈비뼈에서 직조된 꽃대궁
세상에 하나뿐인 삼각 변주곡이다

양다문 채 자신을 꺼내려 힘을 모으는
응축된 단전의 움직임

약력

- ▲1998년 월간 '문학공간' 신인상 등단
- ▲광주시인협회 '광주시문학상' 수상
- ▲광주시인협회 '광주시문학상' 올해의 작품상 수상
- ▲영호남문인협회 '영호남문학상' 수상
- ▲현 광주시인 협회 부회장, 총장문화회 회장
- ▲한국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회원
- ▲영호남문인협회 회원
- ▲시집 : '삼각 변주곡'



평설

문정숙님의 시 '빛바랜 추억의 그리움'에서의 시적 화자는 빛바랜 추억 속으로 들어가 그리움에 잠긴다. 추억은 그 시절의 햇살을 꽃피우며 그리움의 물살 속으로 들락거리게 한다.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쓸쓸하다. 날카로운 기억에 찔려 흥칫 놀라기도 하지만, 그리움에 정령당한 추억들이 있어 달달한 거리를 걷고 있는 듯 행복하다. 빛바랜 추억의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켜면 따스 그 그리움이 거리마다 빛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그리움의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버리고 간 혹독한 기억일지라도 그리움이라는 유전 인자는 언젠가는 울ტი기 마련이다. 그 유전 인자는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에 울 수도 있고 썰물이 빠져나가는 쓸쓸한 날에 울 수도 있다. 기억상실증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울기도 그 그리움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다. 시적 화자는 그 마음을 '마음속 그리움 파편의 울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맞다. 그 울림이 클수록 우리는 행복하다. 이 시는 고독한 감성, 마음속 그리움, 삶의 향기, 애잔한 동심, 입화되는 오색단풍, 날개 접는 매미, 날갯짓하는 천상화 등이 다가와 회상에 잠기게 한다. 그 속에서 추억은 그리움의 동산으로 안내한다. 인생을 녹여낸 지우개처럼 점점 빛바래져 가는 추억, 그 안에 여러 감성들이 이미지 구현을 통해 시적 형상화 되어 있다. 여기서 기다림과 그리움과 사랑이 하나되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평설

배순옥님의 시 '삼각 변주곡變奏曲'에서의 시적 화자는 헌정 연주회의 정경을 상징의 그릇에 담아놓고 있다. 이 시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몸 없는 자궁이 악기란다. 소리를 내는 자궁이 악기란다. 멋있다. 소리의 뒤쪽, 그 울음 끈을 잡고 연주하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제의 울음 끈을 잡고 연주하는 것일까. '헌정'은 무엇을 올려바침이라는 뜻이다. 감사의 뜻으로 헌정하기까지 시적 화자는 머나먼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울음 끈을 부여잡고 아픈 많은 길을 걸으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헌정 연주회를 한 것이다. 왜어반 음표들에게 소리의 웃을 입히고 느슨한 줄을 팽팽하게 당기며 악보를 넘겼을 것이다. 그런 시적 화자의 마음을 '양다문 채 자신을 꺼내려 힘을 모으는/ 응축된 단전의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다문, 힘을 모으는, 응축된 단전이라는 시어에서 시적 화자의 절절함과 간절함이 느껴진다. 아픈 많은 시적 화자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음 이탈하듯 주저앉고 싶었던 날이 어디 하루 이틀뿐이었을까. 시적 화자는 그 어려움을 '더 낮은 비명/ 갈비 같은 천동소리'라고 말하고 있다. 아픔이 느껴진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시적 화자가 눈물겹게 아름답다. '저항과 굴절로 변주되어 태어나는/ 저 뜨거운 아이'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 삼각 변주곡인 '나는, 아버지 갈비뼈에서 직조된 꽃대궁'이란다. 화중점적이다. 상징으로 끌고 가며 감동을 배가시켜 주고 있어 더 멋있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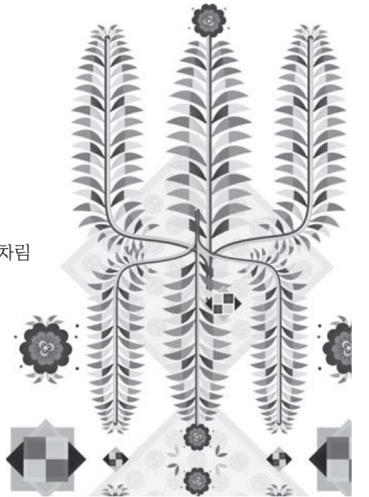
조각보를 깬다

덧발을 가로지른 산책길
짜투리 땅도 분을 뜬다
한 뼘 한 뼘 노루발 따라
자수 놓이하듯

노란 유채 꽃밭이 심지 돌우면
상추 배추 고추 모종들이
형형색색 조각보로 이어진다

능선에서 바라보니
아득한 여백이 짜맞춘 퍼즐처럼
이제야 아물었다
모반 위에 오곡밥 덮어놓은 듯한 상차림
산동네는 모자이크 비단길이다

누덕누덕 내 생도
조각보 하나 이으며 여기까지 왔다
한 생을 누벼온 종종 밭걸음에
엇박자 길 끼워서 넣었지
덧땀수록 아름답다는 조각보
벗꽃도 피고 패랭이꽃도 피어난다



약력

- ▲문학예술 신인상, 시와 사람 등단, 제2회 공무원 연금 문학상 수상, 제2회 기억하라 오월 큰테츠 경연대회 최우수상(시·시극)
- ▲(사)서문법랑문학연구소 시낭송 회장, 중·고등학교 교사 역임
- ▲시집 : '사랑 꽃으로 피고 외로움 잎으로 지다', '조각보를 깬다'



평설

홍영숙님의 시 '조각보를 깬다'에서의 시적 화자는 삶이라는 조각보를 깬다고 있다. 조각보는 여러 조각의 형상을 대어 만든 보자기다.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의 오늘을 잇대어 만드느냐에 따라 삶이라는 조각보는 달라진다. 보잘것없이 작은 천 조각 같은 하루일지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면 아름다운 삶이라는 조각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그 마음을 '상추 배추 파 고추 모종들이/ 형형색색 조각보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텃밭에 가서 물을 주며 모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썼을 것이다. 그 세심한 마음과 함께 모종들이 조각보로 이어진다. 어떤 날은 솔기 타진 감정을 깬다고 또 어떤 날은 영근 실을 풀며 다시 기웠을 것이다. 그렇게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깬다 보니 '누덕누덕 내 생도/ 조각보 하나 이으며 여기까지 왔다'. '누덕누덕 내 생'에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픔과 울음으로 얼룩졌을 생의 뒤안길에 보이는 듯해 마음이 아프다. 시적 화자는 아픈 많은 엇박자 길을 끼워서 넣었다 다시 깬다는 조각보를 완성해 갔을 것이다. '덧땀수록 아름답다는 조각보'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을 깬다고 어제를 깬다고 또 내일을 기기 위해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벗꽃도 피고 패랭이꽃도 피어났다'. 아름다운 한 생이 꽃피어났다. 조각보를 깬 시간, 그 속에서 삶을 발견하고, 이미지 속에 상징까지 담아내는 솜씨가 세련되어 있다. 자연스런 시상의 전개도 맛깔스럽다.

수필

짚레꽃 추억

짚레꽃 하얗게 핀 오월은 돌아간 할머니 생신 날이다. 짚레꽃은 친정집 대밭 울타리 사이에서 내 친구 정은이처럼 눈이 부시도록 반짝였다.

짚레꽃은 다섯 개의 정교한 꽃잎으로 동전 크기만큼 동글었다. 노란 수술이 유난히 선명하며, 향기까지 은은하였다. 내가 예쁜 바구니에 꽃잎을 따오면 어머니께서는 거대한 짚 팔을 꼰다 반죽하여 밤 물만큼 뭉쳐 찹쌀 반죽 속에 넣어 꽃잎을 살짝 얹어 화전을 부쳤다. 짚레꽃 화전에 오월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직 지직 소리에 짚레꽃잎은 몸을 풀었다. 짚레꽃 향기가 노릇노릇 익어가는 군침 도는 나의 유년은 늘 달콤했다. 화전을 부치는 날이면 짚레꽃 향기에 이끌렸는지 멀리서 고모들이 왔고, 직장 따라 광주에 계신 아버지가 도착하시면 연례행사처럼 꽃잔치를 했다.

어머니가 자주 고름 옥색 저고리에 풀 먹인 옥망목 행주치마를 입고 대청에서 부엌으로 동분서주 하셨다. 땀에 찼든 무명 수건을 벗고 남자머리에는 은으로 만든 꽃잠(簪)과 봉잠 서너 개의 장신구가 아름다웠다.

보기도 아까운 화전을 나는 대밭 뒤뜰에 사는 내 친구 정은이와 정은이가 할머니께 빨리 갔다 드리고

싫어서 앞마당 대문보다는 짚레나무 사이 개구멍을 통과하면서 가시에 찔려도 별로 아픈 줄을 몰랐다. 옷과 머리카락 그리고 고사리손에 가득 차 있는 짚레향이 가시에 찔린 아픔을 사라지게 했다. 프라이팬 위에서 뒤집는 손놀림처럼 나의 길을 빨라졌다. 골목과 마을에 짚레꽃 향기 주머니를 풀어놓으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좋은 것만 보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고 다 퍼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까지 지 애비 닮았다고 할머니는 미운 소리를 가끔 하셨다.

정은이는 나와 같은 반이었다. 특히 보조개가 예뻐다. 그의 오빠처럼 노래도 잘하였다. 비가 오면 왕복 삼 십여 리를 비료 포대를 같이 쓰고 학교에 갔다. 친구는 비에 맞지 않게 하려고 비료 포대를 내 쪽으로 더 썩워 주었다. 함께 듣는 빗소리에 우리 우정은 한 뼘씩 더 자랐다. 서슴없이 내리는 비처럼 우리는 갈갈거렸고 빗줄기처럼 꿈 많은 푸른 물그네를 공공공 땀다. 또 눈보라 치면 무명 보자기로 머리를 함께 싸매고 한사람 눈만 교대로 보며 길을 걸었다. "어디만큼 가았나?"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하면서 인생의 안내자처럼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매서운 겨울을 보냈던 유일한 친구다.

짚레꽃 피는 봄날이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정은이랑 우리 집 뒤뜰에서 소꿉놀이를 했다. 대밭 밑 양지쪽에 나뭇가리와 벗짚가리가 무더기로 쌓

여 있어 아늑하였다. 몽글몽글한 흙으로 소반 짓고 하얀 꽃잎 따서 화전이라 했고, 짚레 우듬지 벗겨 송덩송덩 썰어서 열무김치라 했다. 봄별을 두드리는 소꿉놀이에 뒤뜰의 오후는 늘 설레었다. 별 한 줌, 꽃향기 한 줌으로 버무려진 아기자기한 소꿉놀이에 봄날이 깜박 졸다 깨어나기도 했다. 우리는 봄별을 반짝 반짝 찾아 애기꽃을 피우며 놀았다.

정은이랑 나는 백자 사공파리에 화전과 짚레순을 정갈하게 담아서, 꾸리 감고 계시는 할머니께 한 상 차려드렸다. 남남 후루룩하며 맛있다고 시늉하시던 할머니가 그만 뒤라 얘기할 때는 소꿉놀이도 한 심드렁하였다. 토끼가 알기로 풀잎 새기듯 우듬지를 조근거리면 단맛이 입안으로 고였다. 순한 짚레 향 달은 친구 정은이가 있어 유년기 행복했다. 팔심을 넘겼지만 짚레꽃 피는 오월이 오면 서울과 광주 중간지점에서 만날 것이다.

약력

- ▲한국수필신인상, 아시아 서석문학 시 신인상, 대한시협 최우수상, 무성서원상문학 우수상, 오은문학 디카시 대상, 광주문협 올해의 수필작품상 등
- ▲광주문인, 아시아서석문학, 광주시인협회 이사
- ▲저서 : '함께 밝은 페달', 서간문집, 디카시집



평설

박연식님의 수필 '짚레꽃 추억'에서의 서술자는 어린 시절 짚레꽃 하얗게 핀 오월을 떠올리고 있다. 할머니의 생신날에 부친한 짚레꽃 화전에 대한 묘사가 싱그러웠다. 짚레꽃잎이 몸을 풀고, 짚레향이 가시에 찔린 아픔을 사라지게 하고, 골목에 짚레꽃 향기 주머니를 풀어 놓으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등의 표현이 아주 좋다. 중반 이후에는 친구 정은이가 애기로 들어간다. 노래도 잘하고 보초기도 이쁜 정은이, 빗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봄날 소꿉놀이에서도 늘 정겨웠던 친구, 함께한 시간들이 늘 설레었고, 행복했다. 순한 짚레꽃 달은 친구 정은이가 있어 행복했던 유년, 팔손이 되어서도 친구가 보고 싶다. 서술자는 오월이면 짚레꽃 향기에 흠뻑 취해 행복했을 것이다. 짚레꽃은 할머니고 어머니이며 친구 정은이인 것이다. 짚레꽃 화전에서 서술자의 유년은 노릇노릇 익어갈 것이다. 시간이 흘러 가슴 파고드는 뜨거운 향내, 그 분침 여는 짚레꽃 분 냄새와 함께 청춘을 불태웠을 것이다. 그렇게 서술자는 짚레꽃처럼 그리움으로 나이들어 갔을 것이다. 짚레꽃은 추억으로 피는 꽃이다. 무심한 마음의 풍경 속에서도 추억이 건들여지면 문득 피어나는 짚레꽃. 서술의 힘이 돋보이는 수필, 도중 도중 끼어드는 묘사, 화전을 표현하는 솜씨가 아주 세련되어 있다. 막힘없이 짙짙 짙어가는 필력이 대단하다. 이 수필은 적절한 묘사, 사색의 공간 만들기, 그 안에 의미 뽐내까지 멋지게 하여 더욱더 빛난다.

평설=박연식의 문학평론가



- ▲문학박사, 전남대학교수역임
- ▲중앙일보 신춘문예대선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동양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성북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함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천안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역

- 목포지사 061270-6889
- 동북포지사 061278-0740
- 남동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6300
- 순천지사 061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62-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8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6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